

## 49장 종의 둘째 노래

이사야서 40-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고레스가 그 일에서 하게 될 역할과 더불어 여호와와 종에 관한 예언을 말하였다. 이제부터 살필 49-55장에서도 포로 된 데서 돌아올 일을 말하지만 고레스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여호와와 종’ 이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 된 데서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분이심을 가르친다.

### 1. 종의 둘째 노래 (49:1-6)

여호와와 종의 부르는 이 둘째 노래에서 화자인 ‘여호와와 종’ 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이고(49:1-3),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어떤 인물이다(49:4-6).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이 노래 안에 잘 표현되어 있다.

#### 1)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1-3절)

- 1 섬들아, 나를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 주셨다.
- 2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그분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  
    그분의 전통에 감추셨다.
- 3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그 입의 말을 마광(磨光)한 화살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종의 사역은 무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담아 두신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칼처럼 만드시지만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지만, 전통에 감추어 두셨다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을 담지한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이라고 불린다(49:3).

#### 2)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종 (4-6절)

- 4 그러나 내가 말하였다.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고  
    공허하고 헛된 일에 나의 힘을 소진하였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상도 나의 하나님께 있다.”
- 5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분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아굽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분께 모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 6 그분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내가 너로 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종의 사역은 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입에서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공허하고 헛된 일에 나의 힘을 소진하였다’ 는 탄식이 나온다(49:4).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원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낙담이 되지 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여호와와 종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될 것’ 을 확신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 이 되심을 고백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모으시는 일도 실패하시지 않을 것 을 확신하였다. ‘모태에서부터 종으로 부름 받은 일’ 은 여호와와 종에게 큰 확신을 준다. 하나님의 경영은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에게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내가 너로 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49:6)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현실을 놓고서 헛되이 수고하였다고 탄식하는 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종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에 거하는 사람들과 그분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밝힌 대로 여기서 ‘여호와와 종’ 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할 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호와와 종’ 이 지칭하는 대상이 이렇게 이중적인 것은, 그 종이 중보적인 사역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여호와와 종의 사역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53장에 나올 마지막 노래의 주제가기도 하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여호와와 종이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만 이방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 된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참조. 행 13:47).

## 2. 종의 역할과 찬송 (49:7-13)

여호와와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 된 자” 이시다(49:7). 하지만 그러한 그분을 보고서 열방의 왕들이 일어서고 경배할 것이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이 여호와와 종에게 입을 맞추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종의 고난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어지는 셋째와 넷째 노래에서 더 밝히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49:8). 여호와와 종은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 하셨다.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서처럼 여기서 이 위로는 무엇보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 여호와와 위로와 구원의 사실이 있으므로 하늘과 땅과 산은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이다(49:13).

### 3. 여호와와 기억하심과 회복 (49:14-21)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말하곤 하였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잊지 못하듯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또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모두 신부처럼 단장시켜서 시온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 시온에 올라올 때에는, 그들의 수가 많아 거처가 좁을 지경이 될 것이다(49:18-20).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서, 그들도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 4. 열방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함 (49:22-26)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열방의 왕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서 자기를 낮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대적에게서 친히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자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온 세상은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49장 익힘 문제

1. 1)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을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그 입의 말을 무엇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절)  
2) 무엇처럼 만들어서 여호와와 전통에 감추시겠다고 하셨습니까? (2절)
2. 여호와와 종은 자신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누가 그의 힘이 되신다고 말합니까? (5절)
3.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와 종을 무엇으로 삼아 그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까? (6절)
4. 1) 여호와와 종을 표현한 말을 7절에서 찾아서 써 보십시오.  
2) 그를 향한 열왕과 방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
5. 포로로 잡혀간 시온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 말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어디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